

06 2019  
VOL.228

# 언론 사람



**04** 인터뷰 人+人  
폴꽃의 시인, 나태주를 만나다

**06** 손거울  
정상인, 미망인 & 조선족

**12** 이달의 시  
소박하나 신선한 행복의 풍경

**14** 아침을 여는 사람  
최초의 여성학 교수  
장필화 선생님

CLOSE UP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그리 시켰으며  
속은 어이하여 비어 있는가  
저리하고도 사계절 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윤선도의 <오우가> 중 '죽(竹)'편

## 대나무 이야기

조선 왕조를 만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 놓은 전주 경기전(全州 慶基殿).  
한옥마을의 중심이 된 이곳 정원 한쪽에는 고즈넉한 대나무 숲이 있다.  
우뚝우뚝한 몸통들 사이로 태양빛이 렌즈를 통해 영롱한 해무리를 만들었다.  
옛 사람들은 곧은 절개, 의연함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특히 사랑했고 집 주변에 심는 걸 좋아했다.  
대숲은 서늘하지만 습하지 않고 여름 내내 청량함을 더한다.  
처음 부드러운 죽순은 두달 만에 키가 훌쩍 커지고, 이후엔 안으로 단단해질 뿐이다.  
삶의 성장이 다한 후엔, 오로지 안으로 내실을 다지되 속은 항상 비워놓는다.

글·사진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 CONTENTS

# 06

2019  
VOL.228

- 02 CLOSE UP  
대나무 이야기
- 04 인터뷰 人+人  
풀꽃의 시인, 나태주를 만나다
- 06 손거울  
정상인, 미망인 & 조선족
- 08 세상사는 法  
혐오표현, 이제부터 명예훼손의  
가중사유로 처벌된다
-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가취관'
- 12 이달의 시  
소박하나 신선한 행복의 풍경
- 14 아침을 여는 사람  
최초의 여성학 교수  
장필화 선생님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우리의 아이들은 안녕한가요?  
'가버나움'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19년 6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변시지 <몽향>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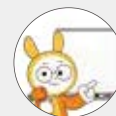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교육

언론평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선생님 친필 '풀꽃'>

## 풀꽃의 시인 나태주를 만나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우리를 마음속으로 급하게 스며들었던, 이제는 국민 애송시의 반열에 오른 '풀꽃'.

25자의 이 작은 우주에 시인은 우리의 눈물과 기쁨과 환희를 빚어냈다.

소박함 속에서 깊은 울림과 큰 감동을 길어내는 풀꽃의 시인, 나태주 선생님을 <언론사람>이 풀꽃 핀 봄날 만났다.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사진 및 정리 윤은자(홍보팀 에디터)

**Q** 1971년 등단하신 후 50년 가까이 시를 쓰고 계십니다. 선생님께 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시는 제가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연애편지는 가슴 두근거리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가장 예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저는 독자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연애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제 시가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제 시를 읽는 것이 좋아요.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인을 할 때도 정성껏 한 페이지 가득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Q** 2012년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에 소개된 이후 '풀꽃'이 많이 알려지면서 역대 광화문 글판 1위로 선정되기도 했고, 지난 설 명절 대통령 신년 인사에서도 '풀꽃'이 언급되었는데요. '풀꽃'이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시가 사랑을 받는 것은 시인의 일이 아니라 독자의 일이에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시만 열심히 쓸 뿐이에요. 시를 하도 많이 써서 '설사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웃음) 대통령과 만난 적은 없는데, 올해 설날 대통령께서 '풀꽃'을 언급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아마 힘든 환경 속에서 '나도 자세히 오래 보고 진득하게 봐 달라'는 뜻을 시를 통해 말씀하신 거라 생각해요. '풀꽃'은 2002년

에 쓴 시인데, 10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그 시를 알아봐줬어요. 저에게 ‘풀꽃’은 작고 초라하며 잊힌 것이지만, 늘 옆에 있는 일상이에요. 삶 속에서 느끼게, 변함없이 천천히 가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행복을, 기쁨을, 아름다움을, 깨끗함을 발견해야 해요. 시인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어떤 것들을 발견해서 독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제가 쓴 시 중에 ‘기쁨’이라는 시가 있어요. 난초 화분의 이파리 하나가 허공을 향해 몸을 기대니 허공도 살그머니 휘어지면서 난초 이파리를 보듬어 안는다. 그 둘 사이에는 사람인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작지만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걸 시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시집 ‘한들한들’을 새로 내셨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아이의 눈으로 시를 쓰시는 느낌입니다.

**A** 하하, 어떻게 알았어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대교약졸(大巧若拙)이란 말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쓰신 봉은사 ‘판전’이란 글씨가 바로 그래요.(편집자 주: 이날 인터뷰는 봉은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큰 기교인데 어린애가 쓴 것 같거든요. 글씨를 잘 쓰려면 쓴다는 생각 없이 써야 하는데, 사실 그 수준까지 가기는 무척 힘들어요. ‘풀꽃’뿐만 아니라 많은 시를 제가 시인임을 잊고 아이들에게 하는 말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시가 아니고 ‘어록’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가장 큰 기교는 쉽고 간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옛날보다 호기심이 더 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Q** 디지털 미디어 발달의 부작용으로 언어의 혼탁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인으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서 탁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마치 더러워진 빨래나 하수구처럼. 우리는 저녁이면 하루 동안 지저분해진 몸을 씻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마음을 보듬기 위해 반성하고 기도해요. 종교나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예쁜 말을 쓰십니까?”라고 누가 물어봐요. 저는 마음이 추하고 더러워서 빨래하는 마음으로 예쁜 말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 걸레처럼 더러워지면 마음을 빨래하기 위해 시를 씁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예쁜 말만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맑은 말을 써야 해요.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저는 시를 통해 더 깨끗하고 맑고 향기로운 것을 추구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혼탁한 것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Q** 이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A** ‘풀꽃’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는 뜻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도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쓸쓸한 곳은 쓸쓸한 대로 남겨야 하는데, 화려하고 빠르게 바꾸려고만 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서울은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은 도시 같다고 말한다고 해요.

하지만 화려한 외양의 이면에는 차별과 미움이 존재합니다. 작년 제주도 난민 입국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아직 그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풀꽃’ 마지막 문장이 ‘너도 그렇다’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베풀어야만 해요.

**Q** 좋은 글, 좋은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시는 더듬거리는 말입니다. 좋은 글에는 작심, 문심, 독심이 같이 있는데, 작심은 작가의 마음, 문심은 문장의 마음, 독심은 독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작가는 결국 이름만 남고 빠지기 때문에 문장하고 함의를 해야 해요. 다음엔 독자의 마음을 고려해야 해요. 더듬거리는 그 사이에 독자의 마음처럼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작심, 문심, 독심이 같이 있을 때 좋은 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은 ‘I Love You’가 아니라 ‘I Need You’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넓은 범주의 사랑입니다. 난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당신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이 될 거라는 의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만 갖고 쓰면 ‘I Need You’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I Love You’가 아니라 ‘I Need You’가 되어야 하죠.

**Q** 마지막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김명숙 시인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 위해서 도움이 되나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두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다고 해야 자꾸 좋아질 것이고, 싫다고 하면 더 싫어지거든요. 우리 모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재판장님, 당시 상황은 정상인도  
 오판할 수 있는 격앙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증인처럼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특별한 장애를 가진...”

대형로펌 변호사(정우성)가 법정에서 던진 대사입니다. 변호사를 바라보는 자폐 소녀(김향기)는 배신감을 느낀 듯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잠시 소신을 접고, 아버지의 빛을 갹기 위해 의뢰인의 살인 혐의를 벗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증인’은 2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는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맡는 등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영화제 수상소감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완곡하게 밝히며,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 왔습니다. 영화 ‘증인’은 ‘일반인’이나 ‘비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정상인’을 선택하는 정우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에 저항합니다. ‘정상인’이라는 어휘 선택은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내포하는 표현을 통해 눈길을 끌려는 행태는 언론에서조차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활비는 눈먼 돈’, ‘절름발이 행정’, ‘꿀 먹은 병어리’ 같은 표현이 기사 제목으로 뽐혀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도 때때로 장애에 대한 차별을 표현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00당에는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시각장애인은 좀 우수한 편이죠’ 등을 사용합니다. 어휘 선택은 인식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어서, 그들이 만들 법안과 정책이 차별을 정당화할까 우려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자가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자(漢字) 문제를 틀린 뒤, ‘저는 한자 장애인 이에요’라고 말해 장애인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조선 시대 내시들을 희화화하는 소재가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또, 교양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자마자, KTX와 항공료가 30% 할인돼 한 해 1천만 원을 벌었어요’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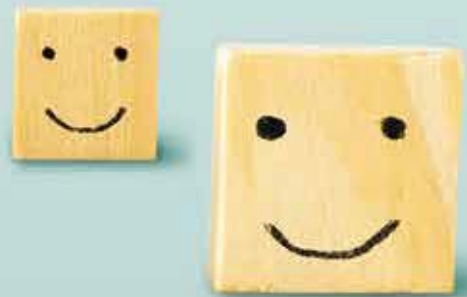
“원래 여판사는 배석으로 받지 않는데...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여판사는 일 좀 할 만하면 신혼여행 가요.  
 좀 지나면 임신했다고 휴직하고”

한 부장판사가 새로 일하게 된 여판사에게 싸늘하게 내뿜습니다. 여판사는 결혼 뒤 임신을 하게 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소장을 읽고 판결문을 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장판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다, 유산하고 맙니다.

현직 판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한 장면입니다. 남성 중심인 법원 사회에서 여판사들이 겪는 고충이 잘 드러납니다. 드라마 속 부장판사는 ‘여판사’라는 어휘를 선택했습니다. ‘남판사’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데, ‘여판사’는 쓰는 빈도가 높습니다. ‘남검사’, ‘남기자’

# 정상인, 미망인 & 조선족

글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라는 어휘는 낯설지만, '여검사', '여기자'는 많이 듣게 됩니다. '女'를 접두어로 쓰는 어휘에는, 원래 남자가 하는 일인데 예외적으로 여성이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울남고'는 없지만, '서울여고'는 있습니다.

여성차별 의식의 최고봉은 미망인(未亡人)입니다. 아직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착오적 가부장적 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과부(寡婦) 역시 한자를 보면 '부족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부 국문학자들이 미망인이나 과부 대신 '고인의 아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은 여전히 '고인의 아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은 경제 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잘 팔리는 상품은 어느 매체든 '효자상품'이라는 표현을 관행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효녀상품'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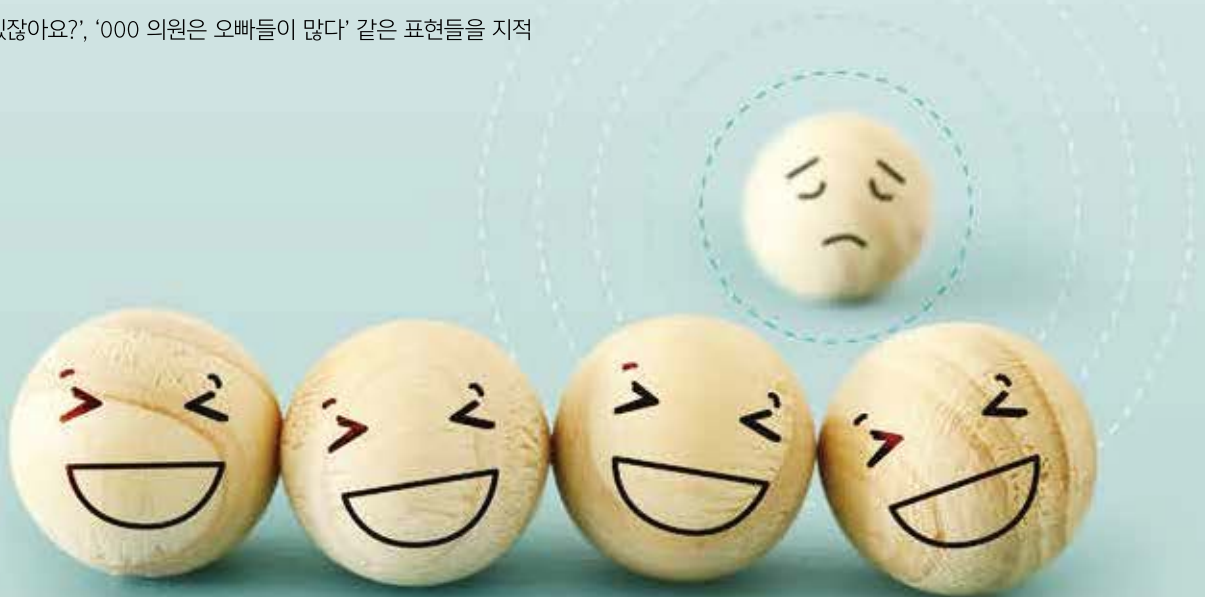
점차 영향력이 커지는 예능 프로그램의 성차별 의식도 문제입니다. 한 여행 프로그램은 여성 출연자에게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의 표현으로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의식을 반영한 이 방송사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여성 출연자를 꽃뱀이라고 칭하고, 여성의 외모를 웃음의 소재로 삼는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정치 구도가 공고한 상황에서, 선거기간에 여성 정치인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단어들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000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000 의원의 여자가 두 명 더 있잖아요?', '000 의원은 오빠들이 많다' 같은 표현들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2월 성(性) 중립적 용어를 권장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인류를 뜻하는 Mankind는 Humanity로, 인력을 뜻하는 Manpower는 Staff로, 사업가를 뜻하는 Businessman은 Businessperson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해군은 군가의 남성 중심적 단어를 변경했습니다. 점차 여성 군인이 많아지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우리 군인들은 여전히 "사나이로 ♪ 태어나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조선족'에 주목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사는 한국인은 '재미교포', '재일교포'인데, 중국과 옛 소련에 사는 한국인을 '조선족',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선족'은 중국 중앙 정부가 부르는 소수민족의 이름이고, '고려인' 역시 모스크바 중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40년대 만주와 사할린에 200만 명에 육박하는 조선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에 더 치열하게 맞섰던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족과 미망인, 정상인 같은 어휘를 SNS에서 사용한다면, 스스로를 차별의식이 내면화된 '꼰대'라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차별과 평등의 '언어 줄다리기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한창입니다. 부디 평등의 편에서, 적어도 '꼰대'라는 비난은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혐오표현, 이제부터 명예훼손의 가중사유로 처벌된다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올해 7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법원조직법 시행으로 설립된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서, 법관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고 평가가 된다. 양형 예측이 죄형 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명예

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이번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양형기준 대상 범죄에서 빠지고 모욕은 들어갔다는 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점, 그리고 특별가중인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이 적고,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양형보다는 유·무죄가 사회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이 고려되어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가 되었다.

반면에 모욕죄의 경우는 비록 징역형의 상한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낮지만,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실무상 실형 선고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양형위원회는 모욕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해서 비범죄화 요구가 크지도 않다고 보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양형을 더 높게 잡은 것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 피해가 빠르고 크게 확대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악성이 크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 한편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의미 있는 양형기준 내용은 바로 '혐오'라는 단어의 등장이다. 사실 범행의 동기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는 그전부터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 들어와있었다. 하지만 혐오는 2007년 양형기준이 생긴 이래로 처음 도입된 것이다. 사실 혐오와 증오가 단어의 의미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함의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의 저자 제러미 월드론에 따르면 증오는 범행 동기에 명확히 초점을 맞춘 개념인 반면, 혐오는 어떤 행위의 동기라기보다는 어떤 표현 형태의 잠재적 효과로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가령 혐오는 사람들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특별가중사유로써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도 집단에 대한 혐오감정 발현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

다. 그전에도 살인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방화죄에 대한 특별가중인자로서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이 들어가 있었지만,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이라는 내용은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 혐오

표현의 위해성을 사회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이것이 만연한 데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1심 판결이 선고된 온라인상 모욕죄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혐오표현이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혐오표현의 사회적 심각성을 파악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의 50% 이상이 '혐오표현으로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낀다'는 문항에 공감을 보였다고 한다.

즉,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으며,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해악성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유럽에서도 혐오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혐오표현의 범죄화에 대해서 사회 내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혐오'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을 금지하는 규제, 즉 형사규제를 통해 막기보다는, (좋은 방향을) 지지하는 규제, 즉 형성적 규제를 통해 혐오표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가 주도의 교육, 홍보, 정책, 연구 등의 앞장선 지원, 인권·시민단체의 반차별운동, 온라인 영역에서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혐오표현을 내는 목소리가 세를 잃도록 긍정적이고 자생적인 사회의 힘을 기르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 어쨌든

금지하는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든, 지지하는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든, 혐오표현이 가진 해악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듯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양형기준은 적어도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된 듯 보인다.

기존 범죄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범죄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유럽과는 차이가 있지만(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집단에 대한 표현이면 충분하다), 혐오표현을 범죄로 규정짓지 않은 한국에서 적어도 혐오표현이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중요소로 받아들인 점은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가취관'

가볍게 취향을 중심으로 모이다



글 이재흔(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근 서점가에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는 책들이 있다. <90년생이 온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등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고 공존하는 법을 담은 책으로, 사회 진입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를 신입사원으로 맞은 40~50대 팀장님과 과장님이 주요 독자다. 함께 일하며 어울리고 대화를 할 일도 많은데, 세대 차이로 인해 원활히 소통되지 않으니 밀레니얼 세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서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밀레니얼과의 소통법을 다룬 책들이 서점가의 트렌드로 떠오를 정도로 밀레니얼 세대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기성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신인류, 밀레니얼 세대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 변화 원인을 짚어 보았다.

과거 한국 사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를 꼽자면, '학연, 지연'을 들 수 있다. 출신 학교, 출신 지역과 같은 '소속'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더는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 '소속'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들이 관계를 맺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취향'이다. 개인 취향 기반의 SNS인 유튜브(91.0%), 페이스북(76.2%), 인스타그램(71.4%) 이용률이 모두 70%를 웃돌고, 일평균 사용 시간도 2시간에 가까운 디지털 네이티브 밀레니얼 세대는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또 타인의 일상과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



왼 <90년생이 온다> 도서 표지(출처: 웨일북)  
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도서 표지(출처: 앳워크)



다양한 취향으로 소통하는 '고독한 채팅방'(출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에 능숙한 이들에게 '취향'은 출신 학교와 지역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코드로 자리 잡았다.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 환경도 관계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2010년 4인 가구 비율(22.5%)을 넘어선 1인 가구 비율(23.9%)은 2017년에는 28.6%까지 높아졌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이처럼 4인 가족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의 중심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는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혼자가 익숙하다. 그렇다 보니 단체보다 개인에게 집중하며, 인간관계도 개인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느슨한 저밀도 인간관계를 선호한다. 이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밀레니얼의 관계 지향을 바꾸어 놓았으며, 취향을 기반으로 모이는 가벼운 관계, '가치관'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 성향이 반영된 대표적인 모임 사례로 '고독한 채팅방'을 꼽을 수 있다. '고독한 채팅방'은 연예인, 강아지, 책 등 특정 관심사로 모여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사진과 영상만을 공유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통 방식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진만 주고받는데 소통이 될까 싶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불필요한 교류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독한 채팅방'은 최적화된 소통 방식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유행한 고독한 채팅방의 인기는 현재도 지속 중이며, 취향 기반의 익명으로 소통하는 유사한 온라인 모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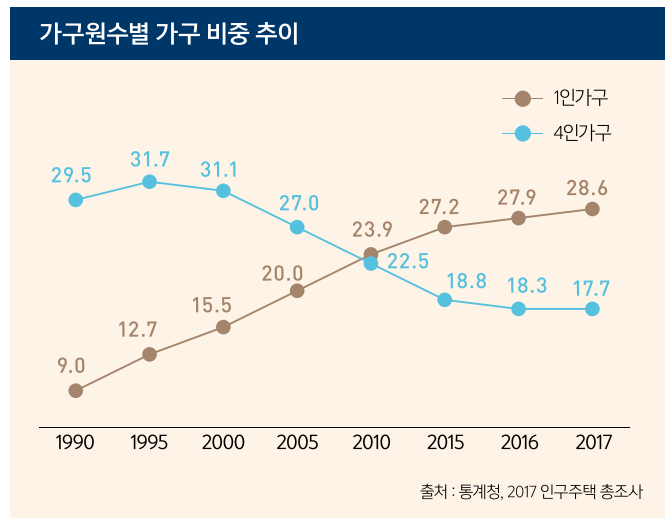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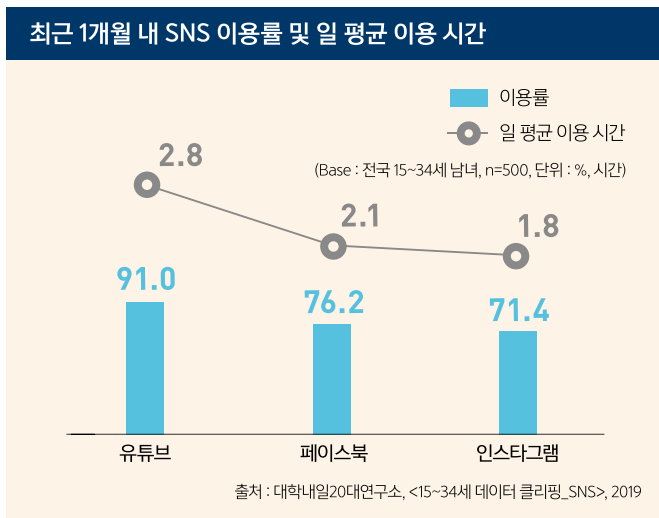
밀레니얼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관계도 '취향'을 기반으로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셜 살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임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취향관', '문토', '안전가옥' 등 '소셜 살롱'을 표방하



다양한 취향 기반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셜 살롱 '문토'  
(출처 : 문토 홈페이지 / <https://munto.kr/>)

는 다양한 모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자리 잡았다. '소셜 살롱'은 17세기 유럽 비슷한 취향을 공유한 이들이 사랑방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했던 '살롱 문화'를 현대에 접목한 모임이다. 독서, 글쓰기, 음악, 요리 등 공통된 관심사와 취향을 기반으로 모여,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 사는 지역, 직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취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1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시즌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싫증나거나 나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가벼움도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관계를 맺기 가장 좋은 수단인 '취향'을 중심으로 가벼운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의 관계와 소통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밀레니얼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세대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소박하나 신선한 행복의 풍경

글 정효구(충북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 행복

김종삼

오늘은 용돈이 든든하다

낮은 신발이나마 닦아 신자

헌 옷이나마 다려 입자 털어 입자

산책을 하자

북한산성행 버스를 타 보자

안양행도 타 보자

나는 행복하다

혼자가 더 행복하다

이 세상이 고맙다 예쁘다

긴 능선 너머

중첩된 저 산더미 산더미 너머

끝없이 펼쳐지는

멘델스존의 로렐라이 아베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민음사, 1982)에서

언제나 '현실'이 문제입니다. 목숨을 가진 인간종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75억 인류가 서로 다른 욕망과 생각을 조절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현실의 묵은 난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실 너머'를 꿈꾸며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런 계보의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김종삼(1921~1984) 시인은 그런 시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앞자리에 서 있는 시인입니다. '비현실'의 시인이라고 할까요? '초현실'의 시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반현실'의 시인이라고 할까요? 그는 좀처럼 우리가 주변으로 밀어내기 어려운 '현실'을 주변화시키고 '시와 음악'에 깃든 순정한 영혼을 대책 없이 사랑하고 노래하다 떠난 시인입니다.

김종삼 시인의 이 시는 그가 실직 상태에 있던 중 오랜만에 얼마간의 수입이 생기게 된 데서 비롯된 작품입니다. 이 시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주석란에는 "십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밀려난 후 이 년 가까이 놀고 있다. (중략) 그러나 그동안 고마운 일이 몇 번 터졌다. 몇몇 문예지에서 고료를 후하게 받아본 적이 있었다. (중략) 단 데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액수이지만 나로서는 정신적 희열이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오랜만에 후한 원고료를 받고 용돈이 든든해진 시인이 펼친 '행복론'입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의 충만한 감정을 '행복'이라고 적어 넣고 그 행복의 기운을 동심원처럼 확장 해가며 '행복의 창조자'가 된 듯이 이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행복'이란 말이 우리들의 삶과 언어생활의 한가운데로 진입한 때도 달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름 좋은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욕망이 되거나 목표가 된다면 부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얼마간의 용돈으로 행복해진 처지에서 낡은 신발이나마 닦아 신자고, 헌 옷이나마 다려 입고 털어 입자고 자 신에게 제안하고 권유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산책도 해보자고, 북한산성행 버스도 타보자고, 안양행 버스도 타보자고 더 제안하며 권유합니다. 그런 제안과 권유와 상상 속에서 그는 '나는 행복하다'고, '혼자이어서 더 행복하다'고, '이 세상이 고맙고 예쁘다'고 단순하지만 신선한 행복론을 제시합니다.

이런 시인의 말을 듣고 있다면 한편으로 현실의 무게를 잊은 듯 가벼워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행복이란 사소하지만 싱그러운 것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런 제1연에 이어 제2연으로 가면서 시인의 행복론이 실로 얼마나 깊고 전문적인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어쩌면 시보다 음악을 더 사랑했고, 시의 기쁨보다 음악의 환희에 더 사로잡힌 시인이 김종삼인데, 그는 이 제2연에서 그의 이런 면모에 의한 행복의 진경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행복이 “긴 능선 너머/ 중첩된 저 산더미 산더미 너머/ 끝없이 펼쳐지는/ 멘델스존의 로렐라이 아베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것이라는 이 제2연의 내용이야말로 얼마간의 용돈으로 충만해진 시인의 행복이 실은 얼마나 웅숭깊고 미학적인 것인지 알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내질(內質)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 그 행복은 쾌락(향락)이 아니라 미학이자 영혼의 울림이라는 것, 그때 행복은 시가 되고 음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삼 시인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동아방송에서 전문적인 음악 담당자였습니다. 그의 첫 시집 제목이 <십이음계>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 그는 많은 작품에서 시와 음악을 이중주처럼 화응시켰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통해 그가 꿈꾸던 현실 너머의 '불멸의 광명'을 보고자 하였고, 그는 이 '불멸의 광명'을 보는 대가로 언제나 '현실'의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현실 너머'는 우리 시사의 무모하나 위대한 꿈이었고 도약이었습니다.



## 한국 최초의 여성학 교수이며 여성학운동가 장필화 선생님

글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나의 동료, 선배 교수, |

### 그리고 멘토인 장필화 선생님 |

장필화 선생님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여성학으로 전임 교수가 된 최초의 페미니스트이다. 이화여대를 여성학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아시아여성학'이란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에게 선생님은 20년 이상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을 청했던 선배였다. 또,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같이했던 동료이기도 했다. 이 지면을 통해 나의 동료이자, 선배 교수 그리고 멘토였던 장

필화 선생님의 리더십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필화 선생님은 이화 여성학의 살아있는 역사이고, 한국 여성학을 구축한 초기 멤버 중 한 명이다. 1984년에 이화여대 여성학과 의 초대 교수로 임용되어 2016년 정년퇴임까지 이화에서 32년의 세월 동안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이화 리더십개발원 원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24년 역사의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13년 동안 소장직을 수행했다. 특히 한국 여성학이 국제화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던 2005년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에서는 조직위원 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참가했던 학자들과 함께 2007년 아시아여

성학회를 창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제1회, 제2회 아시아여성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5년 이상 아시아에서 여성학자들과 활동가들의 새로운 방식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모색했던 리더로서 장필화 선생님의 여러 시도는 아시아여성학회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지속하고 있다.

### 한국 여성학 운동의 중심이었던 장필화 선생님

1980년대 '여성학'은 대학에서나 일반사회에서 많이 튀는 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여성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페미니스트는 아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모호하게 하곤 했다. 하지만 장필화 선생님은 불평등한 여성의 경험적 현실에 대한 규명과 운동으로서의 여성학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고,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헌신하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또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변혁 운동의 맥락에서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는 여성들은 정치적이고 변혁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학을 공부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회운동이고, 문화변혁 운동임을 인식했던 장필화 선생님은 여성학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만나고,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여성학 강사 소개 요청을 받으면서, 여성학 강의자들을 배출하여 전국으로 보내는 이 과정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보았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이는 페미니스트 장필화 선생님의 정치적 올바름에는 항상 남성 중심의 엘리트주의와 서구·근대·발전주의를 함께 비판하는 여성주의 정치학이 함께했다. 체화되어 감정·정동의 정치학으로 실천되는 선생님의 여성주의 정치학, 윤리학은 나를 감동시키고,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통찰력을 주곤 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여성주의자로서의 장필화 선생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했다.

### 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를 써라

나는 여성학과 교수가 되면서 페미니스트 선배 교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장필화 선생님이 주는 도움은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다. 특히 내가 기억하는 부분은 장필화 선생님이 아주

겸손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주는 놀라운 경험들이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을 기꺼이 이용하라는 장필화 선생님의 제안들이 나에게 큰 배움이었다.

장필화 선생님의 이런 리더십을 나는 소명 의식이라고 이해했다. 소명 의식은 역사의 한 시점에 우연적 존재로 등장하는 개인이 역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치한 시점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발견하여 수행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소명은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도구가 되어주는 마음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도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장필화 선생님의 리더십은 놀랍고 신선했다.

### 제도를 만든 페미니스트 학자

장필화 선생님은 여성학과와 초대 교수로 혼자 대학원 학과를 운영하고, 많은 주제의 강좌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여성학회를 만드는 등 무수히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제도를 만드는 교수들은 연구하고 논문과 책을 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서론'을 쓸 정도의 시간과 여유밖에 내지 못한다.

그래서 장필화 선생님은 "나는 늘 '서론'만 쓰는 교수"라고 충분히 연구를 할 시간이 없었던 최초의 여성학 교수라는 영예 뒤에 감춰진 고충을 토로하곤 했다.

최초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최초가 그 다음에 오는 후배들 그리고 후학들의 마중물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최초의 여성학 교수이고, 또 아시아여성학이라는 말을 의미 있는 범주로 만든 장필화 선생님의 의미는 후학들과의 관계성에 있고, 그러한 관계성이 바로 자신을 내주는 선생님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장필화 선생님의 여성주의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과 믿음이 소명 의식을 갖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유지하게 했고, 자신의 명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자신을 헌신하게 했다. 페미니즘의 대중화 시대에 많은 후배가 장필화 선생님과 같이 제도를 만든 선배들이 쓴 '서론'과 자신들의 페미니즘 실천을 엮어 한국 페미니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갈 바란다.



올 초 큰 화제를 몰고 다녔던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 가정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작품이다. 많이 과장되어 있음에도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비정상한 교육열에 대한 공감 때문일 것이다. 자녀에게 일류대에 갈 것을 종용하는 부모들과 그 꿈을 이뤄준다는 명목하에 비윤리적인 짓도 서슴지 않는 입시 코디네이터의 모습은 연신 혀를 차게 만들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랑으로 포장될 때는 잠시 할 말을 잃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벌은 이십 대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보험과도 같은 것이라는 걸, 성인이라면 경험상 알기 때문이다.

'스카이 캐슬'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즈음, 극장가에는 '가버나움'(감독 나딘 라바키)이라는 레바논 영화가 개봉했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레바논 어린이들의 인권과 이민자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작년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 '자인'(자인 알 라피아)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열두 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이이다. 엄밀히 말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인 자인은 학교에 다니는 대신 거리에서 생계를 위해 매진한다. 주스를 만들어

## 우리의 아이들은 안녕한가요? '가버나움'

글 윤성은(영화평론가)

팔고, 쓰레기를 치우고, 잡다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 동생이 줄줄이 딸린 자인의 일상이다. 자인의 부모와 어린 형제들은 쉴 새 없이 일하는 데도 제대로 된 방 한 칸 얻을 여력이 없다. 그리고 이들의 남루한 삶은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느 날 자인은 열한 살짜리 여동생을 결혼시키려는 부모를 저지하려다 실패한 후 집을 나온다. 그러나 자인이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감당할 수도 없는 아이를 낳아 불행에 빠뜨리는 어른들의 이기심일 뿐이다. 영화 말미에 소년원에 들어간 자인은 한 법률 상담 TV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고 말한다. 자인의 이 처절한 요구는 ‘가버나움’ 포스터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하다. 반인륜적이면서도 정당성이 느껴지는 이 강렬한 카피도 분명 한몫을 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은 국내에서 약 1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올 상반기 다양성 영화 중 드물게 주목받은 작품이 되었다.

가난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의 이야기는 ‘스카이 캐슬’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긴다. 자인의 부모는 대다수의 레바논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인권이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녀는 신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임신과 출산을 계속한다. 그런 무지가 결국 자인의 부모님을 법정에서 세운 것이다.

어떤 이들은 레바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니 다행이라고 안도할지 모른다. 물론 자인 앞에서, 한 번도 배굶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한다는 것은 무개념하고 사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란 철저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한국 사회의 아이들 또한 자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공부해야 하고, 무슨 일이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것을 강요받는 아이들 또한 끔찍한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자녀를 낳아 놓고 방치하는 것만큼이나 부모가 자녀의 삶을 소유하고 재단하려는 것도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부모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평생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신하건대, 가난의 대물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가치관, 주체성 없는 삶의 대물림이다.

‘가버나움’ 또한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즉 인간의 생존권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작품은 아니다. 자인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사회적 존재론에 대한 주제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인이 집을 나와 만나게 된 싱글맘 ‘티게스트’(요르다노스 시프로우) 또한 불법 체류자로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자인과 티게스트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이들의 공동 육아가 절실한 그녀의 어린 아들뿐 아니라 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유사성이다. 따라서 이 영화는 자인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나가는 지난한 여정, 성장담으로도 읽을 수도 있다.

어째서 인류는 이제껏 함께 생존하고 성장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아마 서로의 사정에 대해 잘 몰랐던 시간이 길었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과식이 죽음을 불러오는 곳과 기아가 죽음을 불러오는 곳, 교육의 사각지대와 사교육 공화국은 비행기로 고작 몇 시간 거리에 있다. 국경을 넘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지식을 알려주며,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갈망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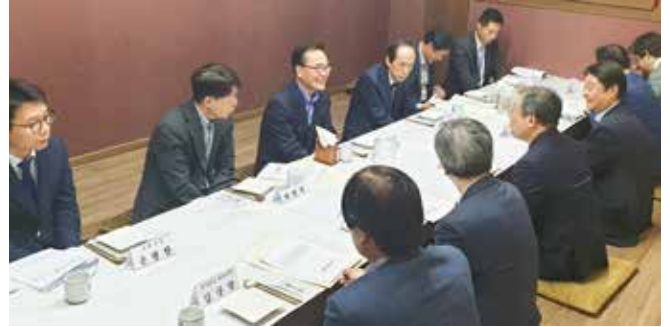
## 위원회 뉴스

### 이석형 위원장, '한국의 언론중재와 법의 현실' 주제로 강연



이석형 위원장은 5월 8일 풀빛문화연대에서 정치·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언론중재와 법의 현실'을 주제로 뉴스 소비방식의 변화, 가짜뉴스로 인한 인격권 피해 등 최근의 언론계 이슈를 진단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대구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5월 24일 대구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구지역 언론현황을 청취하고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대구중재부 손현찬 중재부장, 유영철, 조성호, 이동원, 권장원 중재위원과 김상섭 대구신문 대표이사, 이후혁 대구일보 대표이사, 이상택 매일신문 대표이사, 최규열 KBS대구방송총국 총국장, 박명석 대구MBC 대표이사, 김정길 TBC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위원회-충북MBC 토론회 공동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5월 8일 충북MBC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김보람 위원(서울제5중재부,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변호사), 김중후 크리에이터(후행이TV),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5월 19일과 22일 충북MBC <시사토론 창>에 방영되었다.

###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5월 3일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쳤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2일부터 90일간 운영되었으며, 자체심의 안건 14건을 심의해 9건의 제재결정을 내렸다. 위반유형별 제재결정 건수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건,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이 1건이었다. 제재조치별로는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4건, 권고 2건이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4건은 안내문 송부 조치를, 1건은 불문 결정했다.

### 언론중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실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5월 24일 난지 한강공원생태습지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하여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보호활동에 동참하였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5월 31일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를 수록한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및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 위원 동정

### 권정숙 위원, '5·18민주화운동 39주기' 세미나 참석

권정숙 위원(서울제1중재부,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은 5월 17일 전남대에서 '5·18 보도와 가짜뉴스 문제 점검 및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의 부작용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심미선 위원, '제4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선출

심미선 위원(서울제3중재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10일 제4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심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여론집중도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강소영 위원, 2019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미디어연구 부문' 수상

강소영 위원(서울제7중재부,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은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에서 미디어연구발전기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은 각 산업 분야의 공헌 및 기술적 성과 등을 토대로 수여됐다.

### 이재진 위원, <한국언론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이재진 위원(서울제7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국언론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 언론학보 논문을 전수조사해 언론학 연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했다.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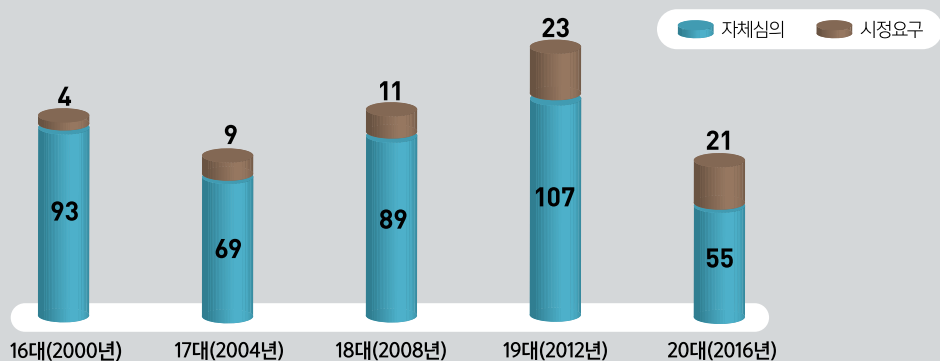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요. 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초 설치된 2000년부터

가장 최근 선거가 있었던 2016년까지 의결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재결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선거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였습니다.

자체심의 안전 외에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한 후보자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도 역시 19대 국회의원선거로 나타났습니다.

#### 제16~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건수



위원회는 지난 4·3 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언론사·지자체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동영상 공모전

## 참가자격

- 제한 없음
- 개인 혹은 팀으로 응모 가능하며, 1인/팀당 복수 응모 가능 (단, 수상은 1명/팀당 1작품으로 한정)

## 공모주제

### 언론중재위원회 동영상 공모전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분쟁해결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개
-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 사회적 피해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 소수자, 약자, 성별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위원회의 방향
-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 사례

## 공모형식

- 영상길이 : 20초 이상 60초 이하의 동영상
- 파일형태 : mpeg, mp4, avi 등
- 해상도 : 1280×720(HD화질) 이상

**접수기간** 2019년 5월 1일(수) ~ 6월 30일(일)

## 제출방법

- 1단계 : 작품을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 ※ 게시물 제목 :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 응모작
  - ※ 입상작으로 선정 시 원본 파일 위원회에 제출 필수
- 2단계 :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pac.or.kr)에서 접수 및 확인
  - ※ 지원 접수 시 게시물 URL 기재

## 시상내역

구분	개별 상금	수상인원(명/팀)
대상	300만 원	1(명/팀)
금상	100만 원	2(명/팀)
은상	50만 원	2(명/팀)
장려상	위원회 기념품	0명

## 결과발표

**7월 셋째 주(예정)**

1차 자체심사 및 2차 네티즌 심사를 종합하여 순위 선정

**문의사항**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해 주십시오.

-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 공모전 담당자 02-397-3082, pac3083@pac.kr
- ※ 본 포스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